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10-14(통권 394호)  
2010.04.09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 1인 가구의 저소득·고령화 심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2~4.9)



##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1인 가구의 저소득 · 고령화 심화 .....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전선형 연구원 (2072-6214, shje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 - 1인 가구의 저소득·고령화 심화

**(1인 가구 급증)** 국내 1인 가구수는 지난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0년 현재 347만 가구로 53.5%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471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총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5.6%에서 2010년 20.3%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23.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징)** 국내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그 격차도 확대되며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9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 또, 소득 격차도 2006년 156만원에서 2009년 170.3만원으로 9%이상 확대되었다. **둘째, 1인 가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2009년 기준,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5세로 타 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가구 평균보다도 6세 이상 높다. 연령별 구성비도 60대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2006년 대비로도 2009년에 3.9%p 증가하였다. **셋째,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기능직군의 1인 가구는 2006년 대비 7.5%p 감소한 반면, 단순노무 및 무직 종사가 가구는 각각 4.3%p, 3.3%p 늘어났다. **넷째, 여자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9년 기준, 1인 가구의 남녀 구성비는 34:66으로 여자가 남자의 약 2배 수준에 이른다. **다섯째, 1인 고소득자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내 소득 양극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1인 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2006년 0.15%에서 2009년 0.63%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섯째,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20%대로 전체가구의 10%에 비해 약 2배 수준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이 2000년 20.0%에서 2009년 27.4%로 증가했다. **일곱째, 비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생수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1인 가구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23.2%에서 2009년 24.6%로 상승하였고, 이는 전국 전체가구에 비해 1.2~2%p 높은 수준이다.

**(국내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실용주의적 가족 가치관의 대두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약화되면서 1-2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구직 활동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혼자'가 강조되는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 또한, 온라인 매체의 증가 등으로 생활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도 감소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부모 부양 회피, 황혼 이혼 증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 등으로 고령 독거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사점)** 국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거주를 위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도심형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빈곤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 요인을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의 악화도 방지해야 한다.** **셋째, 독거 고령자의 기초 생활 지원 강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추진 등 독거 고령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 1인 가구의 급증을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대응해야 한다.**

##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

국내 1인 가구 현황과 7대 구조적 특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급증: 2000년 226만 가구 → 2010년 347만 가구</li> <li>- 총가구 대비 비중 상승: 2000년 15.6%→2010년 20.3%</li> </ul>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화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가구 평균 소득의 43% 수준</li> </ul> </li> <li>- 고령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절반에 가깝고, 비중이 계속 상승</li> </ul> </li> <li>-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1인 가구 급증</li> <li>- 여자 1인 가구가 남자에 비해 2배 수준</li> <li>- 고소득 1인 가구는 증가로 1인 가구내 소득 양극화 조짐</li> <li>-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 지출이 20%대로 전체가구 10%에 비해 2배 수준</li> </ul> </li> <li>- 비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생수준 하락</li> </ul>

국내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주의적 가족 가치관의 대두로 전통적인 가족개념 약화</li> <li>- 자기 경쟁력 강화, '혼자'가 강조되는 개인주의 심화</li> <li>- 온라인 매체 증가 등 생활 편의성 증가</li> <li>- 초혼 연령 상승, 혼인율도 감소</li> <li>- 65세 고령 인구 지속 상승, 부모 부양 회피, 황혼 이혼 증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li> <li>- 고령 독거가구 증가</li> </ul>

시사점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도심형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이 필요</li> <li>- 빈곤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확대로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 요인을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도 방지</li> <li>- 독거 고령자에 대한 기초 생활지원을 강화해야 함</li> <li>- 노인 부양 가구에 세액 공제 확대</li> <li>- 기업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시장 트렌드에 대응해야 함</li> </ul>

## 1.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 총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총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총가구수는 2000년 1,450만 7천 가구에서 2030년에는 1,987만 1천 가구로 증가하고, 그 중 1인 가구는 동기간 226만 2천 가구에서 471만 3천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총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5.6%에서 2005년 20%대로 상승했고 2030년에는 23.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국내 1인 가구가 총가구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의 가구추계 결과로 살펴본 총가구 증가율은 2000년대 초반 전년대비 2%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에는 1%대 이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전년대비 0.1%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반면, 1인 가구의 증가율은 2000년대 초반 8~6%대의 높은 증가율은 보였고 2006년부터 추계된 가구 수에서도 2030년까지 1.3~1.8%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총가구보다 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총가구, 1인 가구수와 비중 >

(단위 : 만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20	2030
총가구 (A)	1,451	1,597	1,715	1,901	1,987
1인 가구(B)	226	319	347	411	471
비중 (B/A)	15.6	20.0	20.3	21.6	23.7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주 : 2000년과 200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 이후는 가구수는 추계된 것임.

## 2. 국내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징

○ 통계청의 MDSS(Micro 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의 2006~2009년의 가구표본을 이용하여 분석

-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와의 차이도 확대되며 빈곤화가 심화

- 2008년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약 43% 수준에 불과함
- 더욱이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차이는 2006년에 약 156만 원에서 2009년에는 170.3만 원으로 9% 이상 커진 것으로 분석됨

### < 전체가구와 1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 비교 >

(단위: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전체가구	2,743,824	2,870,668	2,972,058	3,002,040
1인 가구	1,183,389	1,290,241	1,348,148	1,299,46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전체 가구 및 다가구원 가구주 평균 연령보다 높아 고령화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55.06세로 전체 가구 평균 49.32세와는 약 6세 정도 높으며, 4인 가구보다는 약 11세나 높은 등 다수 가구원을 가진 가정보다 매우 높음
- 특히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2006년 53.59세에서 2009년 55.06세로 1.47세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 전국 가구주 연령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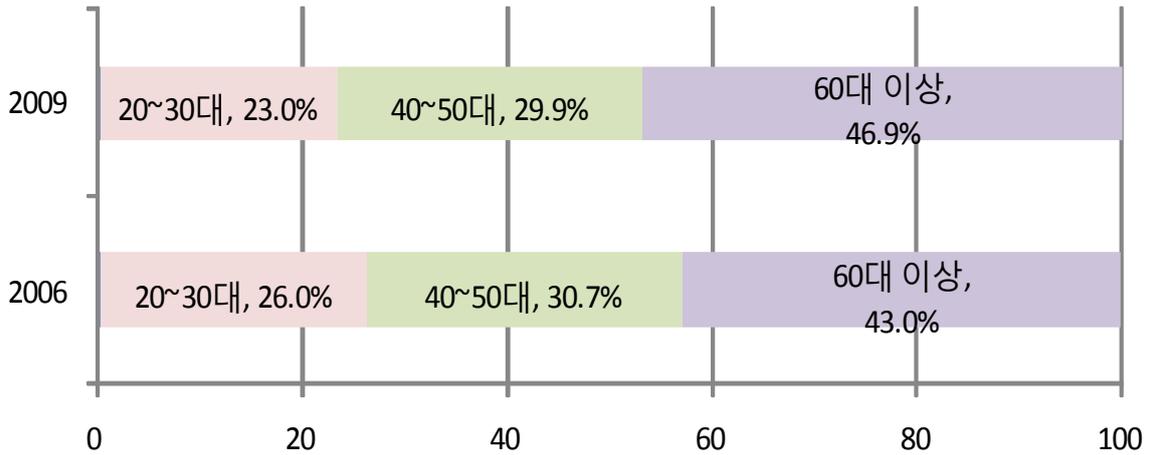
(단위: 세)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전체가구	48.04	48.76	49.09	49.32
1인 가구	53.59	54.22	54.39	55.06
2인 가구	52.89	53.49	54.28	54.67
3인 가구	46.31	46.97	47.22	47.41
4인 가구	43.56	43.97	44.22	44.1
5인 이상	44.75	45.2	44.88	44.8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특히, 연령별로 볼 때 60대 이상 1인 고령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연령별 1인 가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 60대 이상 고령가구는 46.9%로 2006년에 비해 3.9%p 증가한 반면, 20~30대 1인 가구는 23.0%로 3%p 감소하여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들고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
  - 2009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기능직에 종사하는 1인 가구는 2006년에 비해 7.5%p 감소함
  - 이에 반해, 단순노무 종사자와 무직의 1인 가구는 2006년에 비해 각각 4.3%p, 3.3%p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빈곤화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직업별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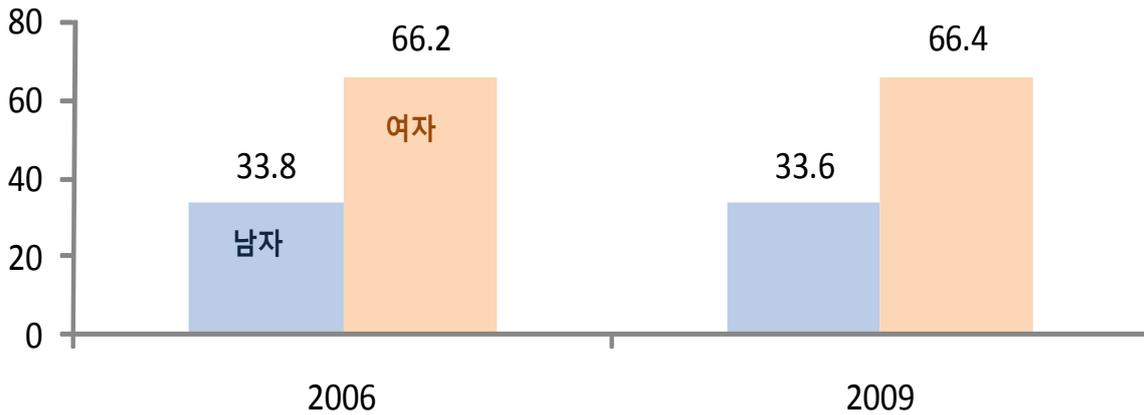
(%)

구분	2006	2009	차이(%p)
관리자	0.5	0.5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	7.8	-1.4
사무 종사자	6.6	4.7	-1.9
서비스·판매 종사자	15.0	13.5	-1.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1	-0.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2	4.8	-1.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5	4.4	-1.1
단순노무 종사자	10.6	14.9	4.3
기타(무직 및 분류불능)	46	49.3	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총가구 가운데 여자 단독 1인 가구 비중이 남자 가구의 약 2배 수준
  - 2009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여자 단독가구는 66.4%로 남자의 33.6%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국내 1인 가구의 남녀 구성비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고소득층 1인 가구 비중은 증가하며 1인 가구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대두
  -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56.4%에서 2009년 54.0%로 2.38%p 감소
  - 반면, 전체 가구에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2006년 0.15%에서 0.63%로 4배 이상 증가

< 1인 가구 소득구간별 구성비 >

(%)

소득 구간	2006	2009	차이(%p)
100만 원 이하	56.37	53.99	-2.38
100~300만 원	37.68	38.07	0.39
300~500만 원	4.59	5.87	1.28
500~700만 원	1.2	1.45	0.25
700~1000만 원	0.14	0.58	0.44
1000만 원 이상	0.01	0.05	0.0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식료품과 보건 부분의 소비 비중도 전체가구 대비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주거비에 대한 지출은 20%대로 전체가구의 10%대에 비해 약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등 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1인 가구의 경우 2006년 8.2%에서 2009년 7.6%로 낮아졌으나 전체가구의 지출비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식음료에 대한 소비 비중은 2006년 14.7%에서 이후 2년 연속 14.3% 소폭 낮아졌으나 2009년에는 15.1%로 크게 상승함
- 입주형태별로는 2009년 기준 1인 가구 가운데 40.8%가 자가에서 거주하며 27.4%는 보증부 월세, 21.9%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이 2006년에 비해 7.4%p 상승함

< 가구의 소비지출 중 부문별 소비 비중 >

(%)

구 분	전체가구				1인 가구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식음료	14.2	13.8	14.1	13.9	14.7	14.3	14.3	15.1
의 류	6.3	6.3	6.2	6.1	5.5	5.6	5.6	6.3
주거 외	10.5	10.4	10.7	10.7	19.2	18.8	20.8	20.1
보 건	6.3	6.5	6.3	6.7	8.2	8.0	7.5	7.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비소비지출도 후생 수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 1인 가구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23.2%에서 2009년 24.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국 전체가구에 비해 1.2~2%p 높은 수준임
-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가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지출인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의 전체적인 후생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비소비지출은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사회보장비(연금, 보험료), 기타 비소비지출(이자, 생산적인 사육·재배에 관한 비용, 도난금, 분실금 등)을 포함

< 비소비지출 비중 추이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전체가구	21.5	22.1	22.3	22.7
1인 가구	23.2	24.1	23.5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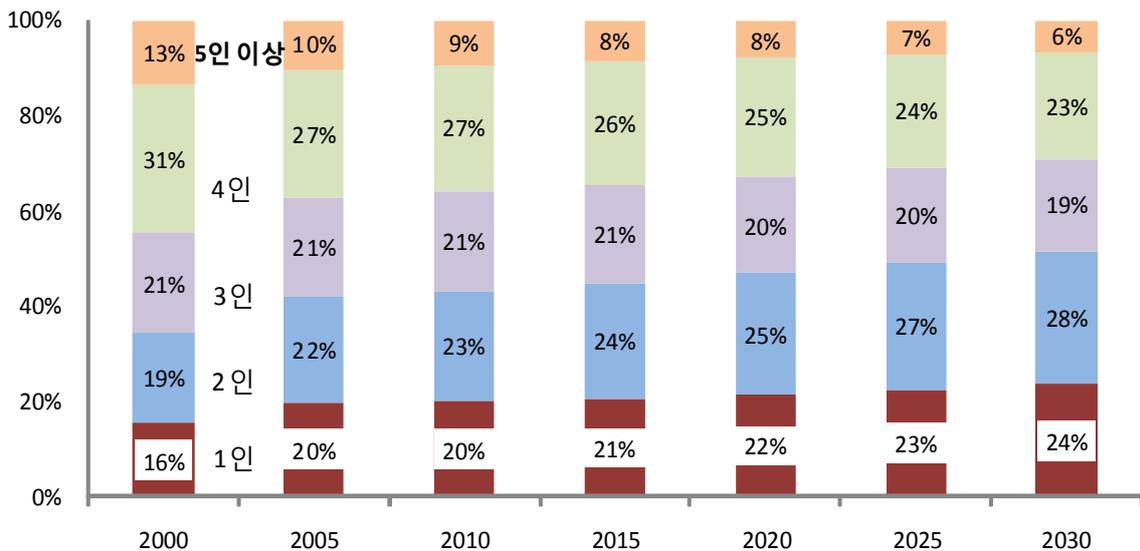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3. 국내 1인 가구 급증의 원인

○ 실용주의적 가족가치관의 등장, 개인주의 심화 및 생활편의성 증가로 인한 독신 생활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확대하고 있음

- 실용주의적 가족가치관의 등장 : 통계청의 2007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2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총가구 중 1인 가구<sup>1)</sup>의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30년 24%로, 2인 가구도 동기간 19%에서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4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30년 23%로, 5인 이상의 가구도 동기간 13%에서 6%로 크게 하락하며 핵가족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도 하락세를 지속
  - 2000년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3.13명이었으나 2009년 2.76명으로 0.37명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48명, 2030년에는 2.35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비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1)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 구직을 위한 자기 경쟁력 강화와 '혼자'가 증시되는 개인주의가 심화)
  - 1997년 IMF이후 구직 활동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대학 진학 이후에도 어학 능력 향상, 경력·자격증 관리 등 자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해짐
  -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개인 간의 생활 방식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보다는 자기의 취미나 관심사 위주로 '혼자' 활동하는 실용주의가 빠르게 확산
  - 아울러, 트위터,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주변 인간 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약화됨
  
- 온라인 매체 증가로 나홀로 생활의 편의성은 증가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인구 백 명당 8.2명에서 2008년 31.8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2009년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전자상거래 규모(기업 간 B2B와 기업·정부간 B2G도 포함)도 2001년 2조 9,980억 원에서 2009년 20조 550억 원으로 급증
  
- 개인주의 심화, 생활 편의성 증가 등으로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혼인율은 감소하면서 젊은 독신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sup>3)</sup>
  - 2000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9.3세 여성이 26.5세 이었으나, 2009년 각각 31.6세와 28.7세로 높아짐
  - 전체 조혼인율도 2000년 7.0%에서 2003년 6.3% 감소하였다가 2007년 7.0%로 재차 회복되었으나 금융위기 등의 심화로 2009년 6.2% 낮아짐
  - \*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 혼인과 초혼연령 추이 >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혼인건수(천건)		332.1	302.5	314.3	330.6	343.6	327.7	309.8
조혼인율(%)		7.0	6.3	6.5	6.8	7.0	6.6	6.2
초혼 연령(세)	남자	29.3	30.1	30.9	31.0	31.1	31.4	31.6
	여자	26.5	27.3	27.7	27.8	28.1	28.3	28.7

주 : 통계청, 「2009년 혼인통계」.

2)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S-Generation 대두로 새롭게 명명하였고, 특히 이들은 솔로족, 코쿤족 등으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해하는 나홀로 족으로 구분될 수 있음. 페이지 8 참조.

3) 이들은 S-Generation중 싱글(Single)족으로 구분됨, 페이지 8 참조.

□ **S-Generation**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특성에 따라 **Solo族**, **Single族**, **Self-reliance族**으로 구분됨. 이들은 기존의 공동체적 생활 방식이나 형태를 거부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면서 혼자 즐기거나 타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최근 이러한 세대들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S-Generation**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Solo族 or Cocoon族(나홀로족)**

- 솔로족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해하며 나홀로 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사람
-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관계 보다는 **PC**와 함께 가상세계에서 채팅이나 전자상거래, 동영상, 게임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
- 또한, 직장, 가족, 이웃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을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로 대체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주로 **N세대**와 패러싱글족, 코쿰족으로 대변
- ※**패러 싱글(Para Single)족** : 패러사이트(기생충)와 싱글의 조합어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 집에서 얹혀살면서도 자기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말함
- ※**코쿰(Cocoon)족** : ‘누에고치’라는 말에서 유래된 나홀로족으로 집이나 차, 가상현실 등 자신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나 이들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고, 업무능력도 뛰어나며,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 **Single族(싱글족)**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경제력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면서 싱글족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고 결혼률이 낮아지고 초혼과 초산 연령이 급격히 높아짐
- 이들은 결혼을 통해 아내, 주부, 엄마로서의 가족문화보다 친구 및 직장 그리고 동년배들과의 교류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고급 소비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함. 주로 골드미스라고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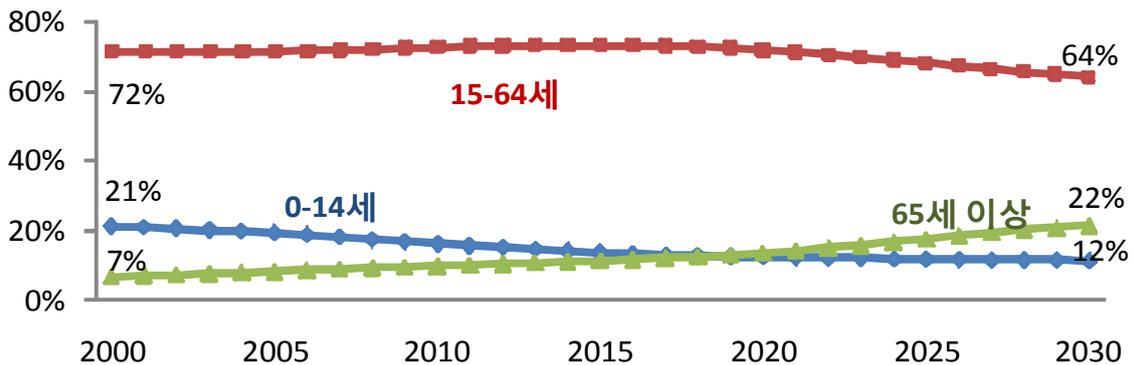
- **Self-reliance族(홀로서기족)**

-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서 살게 된 비자발적인 싱글족
- 젊은 세대 뿐 아니라 결혼생활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도 늘어나면서 홀로서기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음

○ 아울러, 고령화, 황혼 이혼 증가 및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 등도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사회로 진입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21.1%에서 2009년에는 16.8% 감소하였고 2030년에는 12%로 낮아질 전망이다
  -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7.2%에서 2009년 10.7%로 높아졌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총인구 대비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65세 인구가 14.3%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이며, 고령사회는 14%이상~20% 미만인 사회를 지칭함

<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또한, 황혼 이혼 증가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도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황혼 이혼율이 2000년 14.2%에 불과했으나 2008년말 23.1%로 상승하며 고령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 작용
  - 평균수명도 2000년 76세에서 2008년 80.1세로 4.1세 길어졌고,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6.8세 높아 남편 사후 혼자 사는 노인 여성 단독가구가 증가

< 사회적 변화 추이 >

구분	2000	2004	2006	2008
황혼 이혼률(%)	14.2	18.3	19.1	23.1
평균수명	76.0	78.0	79.2	80.1
남녀 평균수명 차이	7.3	6.9	6.7	6.8

자료 : 통계청, 「2008년 생명표」 외.

#### 4. 영향과 시사점

##### 1) 국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긍·부정적 영향

○ (부동산) 1인 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도심형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대형 아파트 시장의 위축, 높은 월세(렌트) 중심의 주거형태로 주거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싱글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할 전망
-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상 도심의 소형주거타운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정부 주택정책도 다가구원 가구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저해
- 1인 가구의 주거형태가 주로 월세와 보증부월세로 주거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20%대를 차지하는 만큼 주거안정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또한, 1인 가구는 청약가점제로 인한 불이익,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도 될 수 없는 실정임

○ (재정) 고령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도 저하시켜 재정 효율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09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46%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의 확대가 재정 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사회 문제) 솔로족의 증가로 다양한 동호회, 사교모임은 활성화하고 있으나,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가 퇴조하고 저출산 현상 심화, 독거 노인과 자살자 증가 등의 사회 병리적 문제 발생은 높아지고 있음

- 인터넷 등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취미·여가활동 등의 동호회 활동이 증가
- 그러나, '나' 중심의 개인주의 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는 퇴조
  - 여성 1명당 합계출산률이 2000년 1.467명에서 최근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 말 1.15명으로 하락하며 최저 수준을 기록
  - 또한, 최근 경찰대학교에서 발표한 '노인자살 실태 분석과 예방 대책'에 따르면 61세 이상 자살자 수가 1989년 788명에서 2008년 402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이혼자의 자살률도 유배우자 경우보다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비 시장)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업의 소형 1인용 상품 출시가 늘어나고, 1인용 전문식당이 등장하는 등 전체 소비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국내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증대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소형, 1인용 상품의 출시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이 확대됨
  - 소형가전 상품과 다양한 기능성 가구, 1인용 소형 포장 상품들이 등장하여 빠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젊은 나홀로 족을 위한 온라인 판매 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고, 시니어 및 실버세대에 대한 온라인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1인 생활을 위한 요리 및 취미 강좌, 나홀로족을 위한 레스토랑, 싱글족 가사지원 사업, 싱글 맞춤형 상품들이 보다 다양화 될 것임
- 그러나,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의 43% 수준에 불과하고, 1인 가구의 약 절반 정도가 고령자 가구여서 미래 및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들 가구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전체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큼
  - 2009년 기준 1인 가구 중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54%를 차지

< 국내 1인 가구 증가의 긍·부정적 영향 >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자산 (부동산)	- '싱글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 활성화 및 신규공급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에 소형 주거타운 건설 활발	- 전세 중심에서 월세(렌트) 시장 확대로 1인 가구 주거비중 과다 - 대형아파트 시장의 위축
재정	-	-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에 부담 -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저하
사회 문제	- 다양한 동호회, 사교모임 등 온·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	-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약화되고 '나' 의 개인주의 심화 - 저출산 심화 - 독거노인가구 급증 - 자살 급증
소비	- 1인소비 시장 확대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 - 소량상품, 웰빙상품 인기 지속 - 온라인 시장 확대 지속 - 시니어 및 실버 세대를 위한 상품과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 - 싱글 가사지원 사업, 싱글 맞춤형 상품의 성장	-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시장 위축될 수 있음

2)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실 거주를 위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주거 생활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

- 우선,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저소득 1인 가구에 주거 급여를 확대하고, 주거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의 주거 안정책이 지원되어야 함
- 또, 청약시 소형주택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 대상을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포함시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한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0m<sup>2</sup> 이하의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함

- 둘째,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 요인을 완화하고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해야 함
  - 고령자 일자리 지원 강화 : 고령자가 정규적인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은 물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는 물론 국가 재정 부담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단순 노무 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고령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
    - 한편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자 근로수당’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
  
- 셋째, 고령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독거 고령자 자활 지원,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추진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독거 고령자의 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각 기초 지자체별로 고령자 생활 관련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활성화시켜 독거 고령자들 스스로가 상호 협조 하에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지역 NGO, 학교, 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독거 고령자의 기초 생활 뿐 아니라 취업, 오락, 심리 상담이나 컨설팅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독거 고령자의 기초 생활 장애를 최소화
  -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금액의 점진적인 현실화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대 90,000원(노인 단독가구, 2010년 4월부터 인상)이 지원되고 있으나, 2010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 4천원 수준임
  
- 넷째, 독거노인 1인 가구의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기업들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 등장에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구매력이 가장 왕성하고 소득 증가세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되는 청·장년층 1인 가구의 현재 니즈와 미래 니즈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는 물론이고 커뮤니티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조호정 선임 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전선형 연구원(2072-6214, shjeon@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4	-6.4	-0.7	2.2	5.9	2.7
유로 지역	0.7	0.8	-0.3	-0.4	-1.9	-4.1	-2.5	-0.1	0.4	0.1	1.0
일본	-3.7	2.7	-4.4	-4.9	-10.3	-5.2	-13.7	6.0	-0.6	3.8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2	7.9	9.1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4월2일	4월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87	3.89	0.02p
	엔/달러	90.76	96.65	92.93	93.85	93.44	-0.41 ¥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585	1.3360	-0.0225\$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927	10,927	-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1,244	11,168	-7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84	3.77	-0.07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26.0	1,118.2	-7.8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723.5	1,724.5	1.0p

주: 4월 9일 해외지표는 전일(4월 8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4월2일	4월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5.19	87.14	1.95\$
	Dubai	36.45	71.85	78.06	80.14	83.55	3.41\$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6.43	275.25	-1.1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